

## 서 면 답 변 서

- 질의 의원 : 채명지 의원
- 답변공무원 : 생활보장과장 신후남
- 질의 요지 : 의료급여 과다이용 및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관련 질의

### □ 답변내용

- 의료급여 과다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.
-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고시 질환별 365일이며,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, 투약일수,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하고, 질환군별 연간 36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급여일수가 상한일수(365일)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 또는 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을 제한합니다.
- 또한, 연 200일 이상 사용한 수급권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일수 안내문을 보내고, 보장기관(지자체)은 상한일수 초과예정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급여일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- 그리고, 의료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수급자는 보장기관(지자체)으로 연장승인 신청을 하고,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사용일수 연장 승인을 받습니다.
- 과다이용수급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한 제도 안내 및 적정의료이용에 대해 설명하여 잠재적 과다이용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실시하며, 반기별 1회 집합교육에서 동영상 및 PPT강의를 실시하고,

약사회 전문약사를 초청하여 약물 복용에 대한 정보와 건강관리 상담도 함께 제공합니다.

- 이를 통해 질병대비 과다이용자로 의심되는 대상자들의 의료쇼핑, 비합리적 의료이용, 약물과다 복용 등을 막아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,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 관찰 및 개입으로 수급자에 대한 변화를 지원하고, 종합적으로는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합니다.
- 다음은,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.
- 부당이득금은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건강보험공단, 보장기관(지자체)에서 의료급여기관 및 수급자의 부당이득을 확인 및 결정하면 해당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절차에 따라 환수를 실시합니다.
- 예를 들어 의료급여증을 타인에게 대여해 부정 사용하거나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행위의 원인이 되어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.
- 또한, 비의료인(사무장 병원)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보장기관(지자체)으로 해당 내용을 통보합니다.
- 통보를 받은 보장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 지급보류 요청하고,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예정 또는 심사 중인 급여비용을 지급 정지합니다.

- 이에 따라 지급정지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부과 고지 및 환수합니다.
- 2017년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의료기관은 대실가람요양병원으로 총 231백만원 정도이며, 부당이득금을 부과 및 지급보류 요청하는 것을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답변합니다.

2017년 12월 일

생활보장과장 신후남 (인)

